

국립세종수목원, 화려한 색과 향기로 봄을 유혹하는 난초의 향연

- 2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 온실에 중앙홀에서 전시 -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2월 7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중앙홀에서 난초 농가 협업 기획전 ‘난초 축제(Orchids Festa) : 꽃들의 향연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전시는 국내 난초 농가인 부양란농원, 한우리농원, 난이야기와 협업해 카틀레야, 덴드로비움, 호접란 등 약 180종의 다양한 난초를 선보인다.

특히, 진화론의 상징으로 알려진 다윈난초(*Angraecum sesquipedale*)를 비롯한 희귀난초와 함께 난초의 학술적 가치, 문화적 배경, 품종별 특징 설명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와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.

전시 기간 난초 농가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‘반려식물 플리마켓’, 설 연휴 기간 난초를 활용한 소형 테라리움 제작 프로그램 ‘난초 숲 만들기’를 운영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전시 관람의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.

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난초는 추운 겨울에도 묵묵히 꽃을 피우며 봄을 준비하는 식물”이라며, “아름다운 난초 꽃이 전하는 봄의 기운과 함께 설 연휴 희망과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세종수목원 서비스본부 전시원실	책임자	실 장	박원순 (044-251-0143)
		담당자	대 리	안병주 (044-251-0162)



1. 2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중앙홀에서 개최하는 난초 기획전시 홍보 포스터



2.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호접난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.



3.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세로지네 난초의 향을 맡고 있다.